

韓國統計의 現況과 將來—經濟統計

邊 衡 尹*

1. 序 言

經濟統計는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常識의 線에 따라서 一旦 다음의 것들을 包括하는 것으로 그것을 解釋하기로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經濟統計는 (i) 國民所得 (ii) 其他의 社會會計(産業聯關·資金循環·國際收支·國富) (iii) 人口·住宅·雇傭 (iv) 農林水産 (v) 鑛工 (vi) 電氣및 에너지 (vii) 建設 (viii) 運輸·通信 (ix) 都小賣 (x) 金融·保險·證券 (xi) 財政 (xii) 貿易·外換·經濟協力 (xiii) 物價·賃金·生産性 (xiv) 消費 및 貯蓄·家計 (xv) 中小企業 (xvi) 企業經營 (xvii) 其他(景氣豫測等)를 意味한다.

勿論 이들은 調査統計(센서스統計 標本調査統計)와 業務統計 그리고 1次統計(基礎統計)와 2次統計(加工統計 내지 統計誘導數)로 分類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原則적으로 一定年の 間隔으로 作成되는 것을 除外하고서는 月別 分期別 年別(年次)의 統計인 경우가 常例로 되어있다.

以下에서는 우선 이들 統計의 現況을 簡單히 살피고 다음에 評價를 통해서 問題點을 밝힘과 아울러 앞으로의 課題를 提示하는 順序가 取해질 것이다.

2. 經濟統計의 現況

우선 經濟統計의 作成機關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統計	作成機關
國民所得	韓國銀行
産業聯關	韓國銀行
資金循環	韓國銀行
國際收支	韓國銀行
國 富	經濟企劃院 國策銀行
人 口	經濟企劃院
住 宅	經濟企劃院 建設部
雇 傭	經濟企劃院 勞動部
農水産	{ 農業 農水産部 農業協同組合中央會
	{ 林業 山林廳
	{ 水産業(漁業) 農水産部 水産廳

* 전 서울大

鑛工	{ 鑛業 製造業	經濟企劃院 動力資源部 經濟企劃院 商工部
電氣 및 에너지		動力資源部 韓國電力株式會社
建設		建設部
運輸		交通部 鐵道廳 海運港灣廳
通信		遞信部
都小賣		經濟企劃院 商工部
金融		韓國銀行
保險·證券		財務部
財政		經濟企劃院 財務部
貿易		商工部 關稅廳 韓國銀行
外換		財務部 韓國銀行
經濟協力		財務部(1981년까지는 經濟企劃院과 財務部)
物價		經濟企劃院 韓國銀行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賃金		勞動部
勞動生産性		韓國生産性本部
消費 및 貯蓄		經濟企劃院 財務部 農業協同組合中央會
家計		經濟企劃院 農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		商工部 中小企業銀行
企業經營		韓國銀行 韓國產業銀行
其他(景氣豫測)		經濟企劃院 韓國銀行

이들 가운데서 人口 住宅 農業 漁業 鑛工業 都小賣業의 統計에는 調査統計(센서스統計)가 包含되어 있으며 國富統計는 調査統計(센서스統計)뿐이다. 이들은 勿論 一定年間隔의 統計이다.

國民所得 產業聯關 資金循環 國際收支의 統計는 2次統計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產業聯關統計만이 一定年間隔의 統計이다. 이들 외에도 生産指數 物價指數 貿易指數 勞動生産性指數 등의 各種指數 景氣豫測統計 등도 2次統計이며 企業經營統計도 2次統計를 包含하고 있다.

雇傭統計의 경우에는 調査統計(標本調査統計)가 主를 이루고 있다.

物價指數는 2次統計이지만 物價統計에는 調査統計(標本調査統計)도 있다. 物價調査는 月 3回 行해지고 있다. 賃金 消費 家計 中小企業 등의 統計도 調査統計이다.

原則적으로 電氣 및 에너지 建設 運輸 通信 金融 保險 證券 財政 貿易 外換 經濟協力 企業經營 등의 統計는 業務統計라고 할 수 있다.

勿論 農業 鑛工業 都小賣業 中小企業 등의 主要統計처럼 調査統計(센서스統計 標本調査統計)業務統計 2次統計 등으로 構成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들 統計 가운데서 特別히 그렇게할 必要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만을 들어서 說明하면 우선 國民所得統計는 가장 널리 利用되고 있는 統計 中の 하나인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2次統計이다. 따라서 1次統計의 正確性이 낮으면 自然히 그 正確性이 낮을 수 밖에 없으며 또 1次統計의 全部 내지 一部에 修正이 加해지면 自然히 修正되지 않을 수 없다.

一旦 推計發表된 以後에 1次統計의 一部에 修正이 加해짐으로써 修正된 最近의 例는 바로 1979年에 行해진 그 推計修正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78年 12月에 1975年基準으로 國民所得統計를 改編한 結果가 發表되었는데 農水産部가 1979年 4月에 10個 主穀을 除外한 農作物生産統計의 過去系列을 修正發表함에 따라 1970—1977年의 國民所得統計가 修正되었다.

그리하여 經濟成長率(不變)도 1970年 7.4% 1971年 8.8% 1972年 5.7% 1973年 14.7% 1974年 7.5% 1975年 7.0% 1976年 14.2% 1977年 10.5%에서 각각 7.6% 9.4% 5.8% 14.9% 8.0% 7.1% 15.1% 10.3%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基準年度는 5年마다 바뀌기로 되어있다. 또 이 基準年度는 곧 5個年計劃의 基準年度이기도 하다. 現在는 1975年이 基準年度로 되어있지만 머지않아 1980年을 基準年度로 하는 改編된 國民所得統計가 發表될 것으로 豫想된다.

國富統計는 1968年 12月 31日基準의 것이 첫번째 것이다. 元來는 10年을 週기로 함으로 1978年 12月 31日 基準의 것이 두번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調査가 1年 앞당겨서 1977年 12月 31日 基準으로 實施되었기 때문에 두번째 것은 1977年 12月 31日 基準의 것이다.

第2次調査는 센서스 標本調査 既存統計資料利用推計를 併用한 것이며 調査參加機關은 각각 다음과 같다.

家計資産	經濟企劃院
政府對外資産	韓國銀行
法人資産	韓國産業銀行
個人資産 I	農水産部
" II	中小企業銀行
" III	國民銀行

經濟活動人口統計는 經濟企劃院에 의해서 標本調査를 통해서 分期別로 作成되고 있다. 그런데 이 調査에서는 美國 日本등의 先進國의 方式이 利用된다.

指數 中 物價指數는 都賣의 경우에는 韓國銀行, 消費者의 경우는 經濟企劃院, 産業生産指數는 經濟企劃院, 農業關係指數는 生産 物價할 것없이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貿易指數는 韓國銀行其他의 大部分의 指數는 經濟企劃院에 의해서 각각 作成되고 있다. 이들 指數의 基準年度는 國民所得統計의 基準年度 즉 5個年計劃의 그것과 同一하다. 따라서 5年마다 改編된다.

勞動生産性指數는 韓國生産性本部에 의해서 作成되고 있다. 그것은 經濟企劃院에서 作成되는 産業別 業種別 產出量統計를 勞動輸入量으로 나는 方式으로 算出된다.

3. 經濟統計의 課題

우리나라 經濟統計는 大體로 具備되어 있는 便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具備된 統計의 質의 向上을 圖謀하는 것이 첫째의 課題일 것이다. 더우기 앞에서 본 것 처럼 가장 널리 利用되는 2次統計인 國民所得統計가 1次統計인 農作物生産統計의 10個 主穀을除外한 1970年以後의 系列의 修正으로 해서 修正을 받게된 例에 비추어 이 質의 向上이라는 點을

특히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이 質의 向上과 關聯해서는 地方統計機構의 整備 地方統計專門要員의 確保·資質向上·士氣昂揚등이 特別히 要請됨은 말할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외에도 앞으로 解決해야 할 課題는 적지 않다.

大體로 具備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現在로서는 個人서비스統計 家計貯蓄 統計등이 未備되어 있는 統計라고 할 수 있고 또 都小賣센서스資料 貨金統計등이 不充分한 統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未備내지 不充分한 統計를 具備 내지 改善해갈 必要가 있을 것이다.

國富統計調査는 先進國에서도 別로 行해지지 않는다. 事實 莫大한 돈과 人員을 들여서 얻어지는 結果가 果然 그럴만한 價値가 있는지 疑心케하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968年 12月 31日 基準으로 行해진 國富統計調査結果가 커다란 誤差로 發表되지 않은채 死藏되어버린 일이 있을 뿐아니라 그當時에 關係했던 有經驗者들은 거의 活用할 수 없는 狀況 下에서 1977年 12月 31日基準의 國富統計調査가 實施되었다. 따라서 그 統計의 正確性도 問題視된다. 따라서 國富統計調査를 거울로 삼아 別로 큰 意義를 느끼지 못하거나 別로 急하지 않거나 別로 많은 用途를 갖지 않는 統計를 위한 大規模統計調査는 可及的 避하도록 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標本調査가 濫用되고 있는 感이 있다. 元來 標本調査는 印度에서 매우 發達하고 있는데 그것은 小大陸인 關係로 全數調査에드는 돈과 人員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代身하는 것으로 標本調査가 利用되고 있는데 主로 基因한다. 勿論 그것에는 科學的인 根據가 있기에 그것은 科學的인 調査임에 틀림없지만 母集團을 前提로 하는 것이라는 點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事實 標本調査結果에서 推計된 數値는 一定間隔으로 全數調査結果에 의해서 체크되게 되어있다. 標本調査結果에서 推計된 數値는 現實에서 遊離될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라의 規模가 작은 便이므로 全數調査를 必要로 할 때에는 可能한 限 全數調査를 하도록 함으로서 限界를 갖고 있는 標本調査가 濫用되는 일이 없도록 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勞動生産性指數만은 民間機構인 韓國生産性本部에서 作成되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다른 指數는 經濟企劃院 韓國銀行 農業協同組合中央會등에서 作成되고 있다. 勿論 그 作成에는 經濟企劃院의 資料가 利用되고 있다. 그러나 生産性貨金制가 強調되고 있는 現實情에서 보면 勞動生産性指數의 作成機關은 勞使가 다같이 信認하는 機關일 必要가 있다. 韓國生産性本部는 比較的 오랜歷史를 갖고 있지만 勞使가 다 같이 信認하고 있고 또 指數에 대해서 信賴를 하고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綿密하게 點檢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萬若 勞使가 다 같이 信認하고 또 信賴하고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勞使가 다 같이 信認하는 機關에서 指數를 作成하도록 하는것이 必要할 것이다. 貨金引上率을 놓고 勞使가 銳角的으로 對立하는 일이 생길 可能性이 크면 클수록 더우기 그 必要性은 強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GNP 失業率 各種指數등이 充實하게 國際基準 나아가서 先進國基準에 따라서 作成되고 있다. 國際比較라는 觀點에서 볼 때 이것은 必要不可缺한 일이다. 그러나 現行의 GNP에 대해서는 이미 싱가포르같은 데에서는 問題가 있다고 보고 海外依存的인 經濟에서는 그 海外依存性을 反映시킬 必要가 있다는 생각에서 別途의 試圖를 行하고 있다. 失業率에 대해서도 完全失業者를 「調査期間中 1時間도 就業하지 않은 者로서 休業者를 除

外한 者中 就業을 希望하고 또 就業이 可能하며 求職活動을 하고 있던 者」로 定義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처럼 人口過剩型의 低開發國의 實情에는 안맞는다는 非難이 오래 前부터 行해져 오고 있다. 그 定義는 先進國에서나 알맞는 것이라는 뜻이다.

또 指數에 대해서도 指數의 性格을 考慮하지 않고 一律적으로 5 個年計劃의 基準年度 즉 國民所得統計의 그것으로 삼고 있다던가 消費者物價指數와는 別途로 生計費指數의 性格을 띤 特殊部分指數의 作成이 疎忽히되고 있다던가와 같은 批判이 加해지고 있다. 比較가 重視되어야 하지만 物價指數의 경우에는 物價가 가장 安定되었다고 볼 수 있는 正常的인 해로 하며 生産指數의 경우에는 生産이 가장 好調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 正常的인 해로 하는 것이 理論으로 妥當한 일이다. 物價는 安定을 바라고 生産은 好調를 바라고 때문이다. 消費者物價指數는 消費者의 立場에서 본 物價를 反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生計費指數와는 性格이 다르다. 따라서 實質賃金을 計算하는데 그것을 使用하는데에는 問題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태어 別途로 生計費指數는 作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에 準하는 意味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特別히 勤勞者를 위주로 한 基本生必需品과 서비스를 包括하는 特殊物價指數를 만들 必要는 있다고 할 수 있다. 生産性賃金制가 強調되고 있는 現實情에 비추어 볼 때 더우기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GNP 失業率 各種指數등을 우리나라 實情에 맞는 것으로 作成하기 위한 勞力이 必要할 것이다.

統計의 長短點을 제대로 알고있거나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誤用이라던가 惡用이 行해질 可能性이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別로 統計의 長短點을 알리는 일이 重視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誤用 내지 惡用을 避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積極적으로 主要統計의 長短點을 比較分析해서 利用者에게 알리는 努力이 必要할 것이다. 더우기 한 機關에서 作成되지 않고 몇 個機關에서 作成되는 統計의 경우에는 特別히 必要性이 強하다고 할 수 있다.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의 경우만 보더라도 統計만을 위해서 長期勤務하는 有能한 有資格者는 거의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그 性格上 長期勤務者는 昇進을 통해서 自動적으로 行政責任職을 맡게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統計專門家 보다는 統計行政家가 되게되어 있다. 따라서 統計專門家로서만 一貫하면서 停年退職을 하는 일이란 그 性格上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 이라는 것이 實情이다. 이것은 곧 統計의 斷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統計의 發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統計經驗의 蓄積이 必要한 것이다. 그럴려면 經驗을 많이 쌓 有能한 有資格者가 必要한 것은 또한 事實이다.

따라서 既存의 研修部署를 통해서든 또 研修部署의 新設을 통해서든 經驗이 많은 有能한 有資格者가 統計研修職 내지 統計研究職에 머무르면서 停年을 맞이하거나 停年後에도 繼續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기 위한 努力이 또 매우 主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勿論 이때 이들에 대해서는 別定職으로서 應分の 報酬와 待遇를 해야 함은 再言을 要치 않는다.

要컨대 統計의 質의 向上, 未備 혹은 不充分한 統計의 具備 혹은 改善, 別로 意義가 없고 急하지 않은 大規模全數調查의 中斷과 標本調查의 슬기로운 活用 勞使雙方이 信賴할 수 있는 勞動生産性指數作成機關의 指定, 우리나라 實情에 맞는 GNP 失業率 各種指數등의 作成, 主要統計의 長短點點報, 報統計經驗의 蓄積을 위한 努力과 地方統計機構의 整備 및 地方統計專門要員의 確保·資質向上·士氣昂揚이 經濟統計와 關聯해서 앞으로 解決해야 할

課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課題의 前提 내지 先行條件이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그 하나는 統計人의 中立的 客觀的인 立場을 取하려는 姿勢 다시 말하면 政治的으로 利用되지 않으려는 積極的인 姿勢와 信賴받는 統計人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統計人이 矜持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각가지 士氣昂揚等을 講究해가야 할 것이며 統計人은 專門家로서의 毅然한 姿勢를 잃지 않도록 努力함과 아울러 經濟學 經營學에 대한 知識水準을 높이기 위한 努力을 持續하며 經濟現實에 대한 강한 感(feeling)을 갖도록 함으로서 常識에 어긋나는 統計의 作成 解釋등을 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統計는 말을 하지 않는다. 數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數値 즉 現實을 나타내는 具體的인 數値이다. 따라서 그것은 말 代身에 어떤 結果로 말하고져 하는 바를 알려준다. 例컨대 過少 내지 過大하게 集計된 糧穀收穫量 다시 말하면 現實과 遊離된 統計에 의거해서 作成된 糧穀需給計劃은 緊急輸入내지 過大在庫發生이라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는 바와 같다. 그렇다면 統計가 現實에서 遊離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統計人은 經濟學 經營學의 知識水準을 높여가는 한편 經濟現實에 대한 강한 感을 갖추도록 努力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4. 結 言

經濟統計를 常識의 線에서 解釋할 때 우리나라는 몇가지 未備 내지 不充分한 統計가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大體로 經濟統計를 具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主로 5個年計劃의 立案과 實施에 基因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經濟開發計劃의 內容은 다름아닌 經濟統計의 體系的인 配列에 不過하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萬若 經濟統計가 現實과 遊離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5個年計劃은 虛空에 뜬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經濟統計와 關聯해서 앞으로 解決해야 할 課題는 重且大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課題는 적어도 여덟가지임을 앞에서 보았다. 勿論 이 課題는 곧 우리나라 經濟統計가 갖고있는 問題點을 反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 이 課題의 前提 내지 先行條件으로서 적어도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음도 앞에서 보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5個年計劃이 現實에 密着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內容을 이루는 經濟統計가 現實에 密着된 것이 되도록 할 必要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두가지 前提내지 先行條件의 充足과 여덟가지 課題의 解決을 위한 積極的인 努力이 무엇보다도 要請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가운데서도 充足되어야 할 前提 내지 先行條件을 特別히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政府의 統計人에 矜持를 심어주기 위한 각가지 士氣昂揚策과 統計人의 專門家로서의 毅然한 姿勢를 잃지 않도록 하는 努力 經濟學 經營學의 知識水準을 높이기 위한 努力 經濟現實에 대한 강한 感을 갖도록 하는 努力등 말이다.

多幸히도 1985年은 다음의 個年計劃의 基準年度로 豫定되고 있는 해이다. 따라서 이런 點에 留意하면서 그 해의 各種統計가 精度가 매우 높은 것, 즉 現實에서 別로 遊離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온갖 努力을 해갈 必要가 있을 것이다. 긴 눈으로 볼 때 1985年까지를 經濟統計의 水準을 一段階 더 높이기 위한 整地作業期間으로 看做해도 無妨할 것이다.